세미나參加記

平生敎育과 高等敎育에 관한 세미나

姜 在 太
(慶尙大 敎育學科)

1. 세미나의 意義

지난 2월 24일 여의도의 私學年金會館 2층 회의실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韓國大學敎育協議會와 韓國平生敎育機構 공동 주최로 '平生敎育과 高等敎育'에 관한 學術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평소 세미나의 主題에 관련된 硏究를 수행하고 講義를 하고 있는 터이라, 세미나 參加記에 대한 요청은 나에게 과분한 청탁이었지만 쾌히 승낙하고 참석하였다.

세미나의 의의는 주최측의 공동 대표인 張仁淑 사무총장과 陳元重 원장의 '세미나 개최에 즈음하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각 高等敎育機關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학습 도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체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계되는 大學의 社會的 奉仕機能의 확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는 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한 주제에 대해 30여 분 동안의 발표와 10여 분 동안의 논평, 그리고 10여 분 동안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100여 명의 참가자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세미나 주제에 관련된 學界와 硏究機關의 專門家들이어서인지, 세미나는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알차게 진행되었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와 영역별 발표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發表와 論評 內容

主題發表는 韓國平生敎育機構의 陳元重 敎育院長이 '平生敎育에서의 高等敎育의 位置'라는 제목으로 하였다. 陳院長은 주제를 ① 平生敎育論과 學習社會論, ② 高等敎育 改革의 論爭, ③ 高等敎育 改革의 平生敎育化로 대별하였는데, 평생교육론을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이라는 방향에서 보면 학습사회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 論理를 전개시켰다.

그는 學習社會論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Hutchins의 저서, UNESCO의 보고서와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學習社會論者들은 종래의 非人間的인 學校敎育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平生敎育 속에다 그 위치를 정하려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高等敎育의 論爭'편에서 고등교육을 보

는 관점은 ①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관, 즉 고등교육을 종래의 초등·중등교육에 연속된 폐쇄적인 고등교육으로 파악하는 관점과, ② 中等後敎育으로서의 고등교육관, 즉 제1단계, 제2단계 교육에 연속되는 개방적인 고등교육으로 파악하는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平生敎育의 理念에서는 중등 후 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관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高等敎育 改革의 平生敎育化' 편에서 陳院長은 高等敎育을 확장·개방·공개하기 위해서는 ① 선발된 학생군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공개하는 문제, ② 全日制와 定時制의 이중 구조를 갖추는 문제, ③ 學點制와 非學點制의 이중 구조를 갖추는 문제, ④ 대학 확장·개방·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 문제, ⑤ 엘리뜨 양성 코스와 대중 봉사 코스의 이중 개설 문제, ⑥ 각종 매체를 통한 대학의 확장 문제, ⑦ 평생교육 요원의 양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두번째의 發表는 서울大의 李敬熙 敎授의 차례였는데 그가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감에 따라 이학주 교수가 '平生敎育과 大學의 理念'이란 제목으로 代讀하였다. 李敬熙 敎授는 이 글을 ① 大學을 평생교육적 필요에 의하여 개방해야 할 것인가, ② 대학을 개방하면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이 지닌 전통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③ 만약에 대학이 개방되어야 한다면 개방의 범위와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등의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 論理를 전개하였다.

그는 첫번째 질문인 大學의 개방에 관계하여 학문의 전당적 특징을 가진 대학이 중세기 후반부터 市民社會의 大學으로, 産學協同體制로, 그리고 大衆敎育的 體制로 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대학이 수용하는 인원의 증대와 전문 인력의 充員 規模의 확장을 의미할 뿐 현대인에게 필요한 學習의 機會를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이상 大學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인가? 이 質問에 대하여 李敎授는 대학의 전통적 탐구의 수준을 격하하거나 퇴색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대학 개방은 필요불가결하므로 문제의 본질은 대학의 개방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대학은 개방하되, 대학의 전통적인 표상인 수월성의 추구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무절제한 개방에 의한 商業主義의 편승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李敬熙 敎授의 發表에 대하여 서울大의 金安重 敎授는 수월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의 대학 개방에 대한 李교수의 발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을 개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職業 및 技術敎育의 量的 擴張이나 能力 위주의 개방만이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品性과 道德性에 있어서의 개방이어야 하므로, 무슨 '硏修', 무슨 '敎育'하는 식의 잡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論評하였다.

세번째로는 서울大의 金鍾喆 敎授가 '高等敎育과 普通敎育의 連繫'라는 제목하에 발표를 하였다. 金敎授는 이 發表에서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의 연계를 교육의 이념적 측면, 교육과정의 측면, 진학·선발제도의 측면, 교원의 측면, 학생지도의 측면,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와 봉사 기능 측면, 사회 환경의 공유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敎育의 理念面에서 볼 때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보통교육을 마친 정도의 學力이 있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그 관련을 찾을 수 있다. 敎育課程 측면에서의 보통교육과 고등교육간에는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정의 전면에 걸쳐 어떠한 계열성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 구조는 국민학교에서부터 토대가 형성되는 일반 교양교육 위에 보다 심화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가장 뚜렷이 부각시켜 주는 것은 대학의 選拔制度인데, 현재 大學入試의 유형에 따라 보통교육을 포함한 하위교육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계의 실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보통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들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은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학생이 보통교육의 소산이며,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고등교육의 소산이라는 사실에서 연유된다. 또한 대학에서의 교육 연구의 주종은 보통교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敎員의 現職硏修 등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연구 기능과 봉사 기능이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맺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는 양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분석될 수 있다. 즉 보통 고등교육기관은 전국을 그 사회 환경으로 하는데 그 속에는 보통교육의 사회 환경이 통합되므로 두 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延世大의 韓駿相 敎授는 이상과 같은 金鍾喆 敎授의 發表에 대해 아주 수사학적인 用語를 사용하면서 논평을 하였다. 논평의 요지는 金敎授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간의 연계에서 묶어야 될 부문과 묶지 말아야 될 부문, 그리고 재고되어야 할 연결 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발상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네번째는 檀國大의 金道洙 敎授가 '高等敎育과 社會敎育의 連繫'라는 제목하에 발표를 하였다. 이 논문은 ① 高等敎育과 社會敎育 連繫의 必要性, ② 大學敎育과 社會敎育의 連繫 內容, ③ 高等敎育과 社會敎育의 連繫 方向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고등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를 대학의 개방이라는, 즉 고등교육의 구제 및 보충적인 입장에서의 사회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있다. 金敎授는 ① 대학은 가장 수준 높은 敎育 內容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質 높은 사회교육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② 오늘날의 大學은 종래의 敎育과 硏究의 機能 이외에 社會奉仕 機能을 가지며, ③ 국민의 學習 水準의 向上에 따라 社會敎育의 質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高等敎育과 社會敎育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大學敎育과 社會敎育은 연계를 긴밀히 해야 하는데, 金敎授는 그 方案의 첫째로 大學 開放을 통하여 교육적인 자원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 둘째는 大學에서의 사회교육 지도자 양성과 연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① 대학 내에 사회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 ②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적 원조, ③ 평생교육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정책적·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교육 제도를 평생교육 제도로 재편성하는 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敎大의 金智子 敎授는 論評을 통해 金道洙 敎授의 意見에 대체로 동감을 하지만 ① 초·중등학교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명료한 개념화와 실제적 기여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연계를 인정한 점, ② 대학과 사회교육과의 연계를 대학교육의 구제 및 보충적인 측면에 비중을 둔 점 등에 대하여는 관점을 다소 달리한다고 하였다.

네번째의 發表는 원래 韓國敎育開發院의 金永植 院長이 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가 文敎部長官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서울大의 李宗宰 敎授가 代讀하였는데 주제는 '소비에트 社會에 있어서의 高等敎育의 機會'이었다. 金院長은 發表에서 볼세비키 혁명 이후, 소련은 社會 秩序를 재편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였는데 그 중심은 支配 階級이 교육과 문화의 특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타파하는 데 두었었다. 그 결과 '30년대에 있어서는 교육을 통한 획기적인 상승 이동이 가능하였는데 '30년대 후반부터 이런 경향이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에 와서 후루시쵸프 수상에 의해 다시금 재고되기 시작하였다.

후루시쵸프 수상은 고등교육기관에의 입학이 학생의 의욕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들의 경쟁의 결과가 되는 사태를 개탄하고 그 해결책으로 중등학교에서의 勞動 訓練과 그에 계속되는 生産現場에서의 實務 勞動을 강조하였고, 高等敎育機關에의 入學規則을 개정하여 黨·콤소몰·노동조합에서의 추천의 중시와 生産勞動 志願生의 보다 쉬운 입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계획의 결과 敎育의 質的 水準의 저하가 초래되어 1964년 후루시쵸프 수상의 실각 직전부터 高等敎育 入學者의 선발에서 學業成績과 入學 試驗의 결과를 중시하는 등 입학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금의 소련에서의 학력 성취는 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방 제국에서와 비슷하게 대부분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학력, 가정의 수입, 거주지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소련 사회에서도 入學 競爭이 치열하여 上級學校 進學을 위한 集中的 學習 프로그램과 家庭敎師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쟁은 결국 하층 계층의 어린이가 전문가 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되게 할 뿐이므로 소련의 연구자들간에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의 발전에 최대한의 공헌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자격 요건에 바탕을 둔 선발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韓國敎育開發院의 姜武燮 室長은 金永植 院長의 발표에 나타난 기본적인 논점이나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관하여 동감한다고 하면서, 平生敎育的 觀點에서 소련의 高等敎育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論議를 부가하면서 論評을 하였다.

마지막 다섯번째의 발표는 梨化女大의 李圭煥 敎授가 '西方 先進國 大學의 擴張敎育 및 成人繼續敎育'에 대해 하였는데 發表 要旨는 다음과 같다.

산업 기술과 사회 민주화의 촉진은 대학의 기능을 다양하게 만든 2대 요인이다. 산업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생산의 증대는 종래의 학구적 풍토의 대학에서 과학기술적·실업적 교육의 실시를 요구하였고, 사회의 민주화와 근로 대중의 교육 기회 확대 운동은 근로 성인의 교육을 위한 대학의 개방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이런 추세에 직면한 서방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성인 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 봉사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 대학의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한 곳이 英國의 大學이다. 이 나라에서는 일찌기 1833년 캠브리지대학에서 大學擴張講座를 개설하였으며, 20세기 초기에 설립된 市民大學도 성인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영국 대학에서의 成人敎育은 1970년대에 들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는데 그 계기는 종전의 '학외 활동'을 전담하는 기구를 '성인 교육학부' 또는 '외부 교육학부'로 개칭·승격시킴으로써 성인교육에 대한 활동이 대학이 성취해야 할 하나의 본질적 과제가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美國의 大學도 일찍부터 성인을 위한 확장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영국에서처럼 일반 문화에 대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직업 기술적 교육의 전수에 그 주안을 두었으며, 美國의 大學에서의 성인교육 활동은 1862년의 Morril 법과 1914년의 Smith-Lever 법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평생학습' 운동에 호응하여 대학을 평생교육 센터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 청년 및 성인을 위한 정시제 학습, 개방제 대학의 운영, 성인을 위한 학위과정의 설치, 순환 교육제의 도입, 지역 사회 대학의 확충 등이 그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전파 매체를 이용하여 정규의 대학 강의를 일반 사회인에게 전수하는 방식이다.

西獨의 대학 확장교육은 영국·미국에 비하면 그 시작이 늦었고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연방 정부의 계획 및 지도하에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1973년에 '연방과 각 방 위원회(Bund-Länder Kommission)'가 작성한 '교육 종합 계획'이 공포된 이후 대학 확장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독에서 대학 수준의 성인 계속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원격대학(Fernuniversität)'이다. 또한 '민중대학(volkshoch·schule)'이 성인 계속교육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오래 전부터 聽講生制度, 夜間制, 通信制, 公開講座 등을 통해 대학의 개방이 전개되어 왔지만, 平生敎育의 原理下에서의 개방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일본의 大學에서의 성인교육 활동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大學通信敎育'이다.

西方 先進 4개국 大學에서의 성인교육은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지만, ① 아직 成人敎育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② 成人敎育의 內容이 보수적이고, ③ 원격 교수의 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④ 국가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李圭煥 敎授의 發表에 대하여 서울大의 鄭址雄 敎授는 李敎授의 發表 內容을 적극 지지하고, 좀더 자세히 보완하는 측면에서 論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 년대에 사회교육법이 제정·공포되었지만 아직 大學의 기구나 제도상에 공식적으로 반영시킨 사례가 없는데, 이제 곧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될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의 확장 사업이 조속히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세미나의 綜合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의 계속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사회적 봉사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의 세미나는 시의적절하였으며, 발표자·논평자 및 참석자들의 참여 정도는 아주 진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각 주제별 발표와 논평 이후 쏟아져 나오는 質問 공세, 질문들을 제한된 시간내에 적절히 소화하려는 討論者들의 안간힘, 그러나 결국에는 예정 시간보다 30 여 분이나 지난 시간에 종합 및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세미나에서도 일상의 세미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發表者와 討論者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學者들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세미나의 준비를 원활히 하고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명한 학자들을 주로 참여시켜야 했었겠지만, 地方化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地方의 學者들이나 각종 사회교육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특히 지방대학에 재직중인 사람으로서의 투정으로 겸해서 해 보았다.

둘째, 발표의 내용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平生敎育이 아직 모색기·여명기에 위치하고 있어 집필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어떤 발표에서는 정련된 노력이 집중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또한 세미나의 주제와 부합되지 않은 논문과 발표 주제와 관련이 먼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내용의 대부분이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를 고등교육의 측면에서만 분석하였다는 사실 등은 세미나 발표자가 모두 大學과 연구 기관의 學者들 일색이었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약간의 문제거리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어느 論評者와 휴식 시간 중에도 나누었던 意見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論評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의 論評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論評이란 옳고 그름을 논하여 비평하는 일이라고 정의해 볼 때, 이번 論評의 대부분은 發表 內容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반면, 비판할 점에 대해서 겨의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發表者와 論評者간의 개인적 인간 관계를 어느 정도 집작하면서도 學問的 成熟을 위해서는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論評者들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 참석자들의 질문이 도리어 활기가 있고 예리해 보였다. 그러나 몇몇 질문자들이 질문을 독점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과 100 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로 인한 오전의 성황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반 수가 넘는 사람들이 떠난 오후의 빈 공간은 다소간의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그러나 이런 부수적인 몇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學術세미나는 대단히 유익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으며, 이런 결론은 필자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發表와 論評者 및 질의자들 대부분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제는 平生敎育에 대한 일반적·원론적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평생교육이 실시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세미나의 意義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